

경부선 무궁화호 회송열차 탈선 복구 완료 (3보)

- 탈선현장 복구완료, 월요일 첫 열차부터 운행재개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7월 14일(금) 22시 58분경 신탄진역 인근에서 토사 유입으로 인해 탈선한 무궁화호의 복구작업을 16일 21시 30분 완료하고, 안전점검 후 17일 첫 열차부터 경부 일반선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○ 이번 현장복구는 토사가 유입되는 극심한 폭우상황에서 일부 전복(6량 중 4량)된 탈선차량을 복구하는 작업으로, 당초 다음 주 월요일(17일) 오전 4시에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으나, 신속한 조치로 당초 계획보다 6시간 30분 빠르게 복구됐다.

□ 한편, 폭우 피해 등으로 인해 전 구간 운행이 중지*되었던 일반선은 기상 상황, 점검차량 운행 등을 통한 안전 확인 절차를 거쳐 구간별로 운행을 재개(저속 → 정상속도)할 예정이며, 구간별 상세한 운행재개 시점**은 코레 일톡,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다.

* 일반선은 고속선에 비해 급경사지와 배수시설 불량개소가 많아 수해에 취약

** ①영동선(60일), 충북선(30일), 태백선·경북선·경전선·중부내륙선(1주일 이상)

②이외 구간은 안전점검 결과 및 기상상황에 따라 운행재개 여부 판단

○ 고속선의 경우, 일반선을 경유하는 구간*을 제외한 나머지 경부고속선, 호남고속선, 수서평택선(SRT), 강릉선**(KTX-이음) 구간은 우선, 저속으로 운행(터널입구 등 취약 구간은 추가 감속)하고, 향후,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정상화할 계획이다.

* 중앙선 및 중부내륙선 KTX-이음 전구간, 경부선 KTX 일부 구간(수원역 경유), 호남선 KTX (서대전~익산역) / ** 강릉선은 일반선 구간이나 기상상황 양호

□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“기상이변으로 인한 극단적 폭우는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, 일반선 구간 급경사지의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폭우 시 안전운행 기준도 재검토해 나갈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강문 (044-201-4602)

